

# 서울신문

## 강원도, '2022 평창평화포럼' 새달 22일부터 사흘간 개최

입력 : 2022-01-24 11:56 | 수정 : 2022-01-24 11:59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2022 평창평화포럼이 다음달 22~2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강원도는 도와 평창군·한국국제협력단이 공동 주최하고 2018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제4회 평창평화포럼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종전선언과 그 너머'를 대주제로 경제·스포츠·DMZ 평화지대·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평화 공공외교 등 5개 핵심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특별 주제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통한 평화협력' 방안을 다룬다.

평창평화포럼은 청년과 MZ(1980~2000년대초 출생자)세대가 다양한 평화 실천 방안과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유스 피스 챌린지', 평화 인재 양성 프로젝트 3기 모집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올해 평창 유스 피스 챌린지에는 108개국, 1769명이 참가 신청을 마쳤다. 이번 평창평화포럼에서는 미팅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 메타버스 DMZ 평화지대가 첫선을 보인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이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통해 DMZ의 평화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구현하고,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김종욱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는 멈출 수 없다."며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에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 구축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